

# 韓國 塔婆 相輪部에 관한 연구

尹 昌 淑  
(放送通信大 講師)

## 〈目 次〉

I. 머릿말	5. 寶蓋
II. 相輪의 起源	6. 水煙
III. 相輪의 각부명칭과 意義	7. 龍車
1. 露盤	8. 寶珠
2. 覆鉢	IV. 相輪部 樣式의 變遷
3. 仰花	V. 맺는말
4. 寶輪	

## I. 머릿말

불교의 전래와 함께 만들어 진 조형물중 오늘날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를 남기고 있는 塔婆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탑파의 각 부분적인 것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그 숫자가 적어, 基壇部에 관한 논문 몇편과 塔身部는 논문은 없고 부분적으로 전체를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지고 있을 뿐이다.<sup>1)</sup>

더구나 相輪部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모두 미진한 실정이다. 일본학자에 의해 쓰여진 논문이 있으나<sup>2)</sup> 大西修也씨는 일본 東大寺 露盤에 관한 양식적인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상륜의 각부분이 가지고 있는 기원이나 의미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相輪部에 관한 논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탑파의 발생과정에서부터 현재 남겨진 탑 상륜의 연원과 각 부분의 명칭과 의미, 그리고 양식적인 변천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불교 조형물로서 종교적인 의의와 건축적인 의미를 미술사적으로 이해하고 탑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尹昌淑, 〈高麗石塔의 基壇樣式에 관한 研究〉, 1988, 단국대학교 碩士學位論文.

2) 大西修也, 〈東大寺七重塔露盤考〉, 《美術史》第101호, 昭和51年.

## II. 相輪의 起源

탑과의 시작은 불교라는 종교 발생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인도의 무덤이었던 것이 불교와 함께 융합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으로 산치(Sanchi) 탑이 남아 있다. 이 탑을 기준으로 탑과 상륜의 시초는 이곳에서부터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탑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圖 1).

탑과의 시원지인 인도에서부터 점차 중앙아시아·중국등의 육로와 또는 남해를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면서 지역 또는 시대에 따라 탑의 형태는 물론 재료 크기가 변화를 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탑과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륜은 어떤 변화를 했을 것인가? 시원지로부터 경로된 여러 지역과 시대 변화에 관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탑과 상륜에 국한시켜 그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 기록에 의하면 『三國遺事』에

“...3층의 土塔이 있는데 위는 가마솥[覆釜]을 덮은 것 같았다...”<sup>3)</sup>

라고 한 것은 초기 우리나라 탑과의 형태에서 상륜은 산치탑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유는 다른 인도탑의 형태나 슐이용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圖 2). 결국 인도탑의 소형화가 한국탑 상륜부에 적용되어 졌다고 보여 진다.

## III. 相輪의 각부 명칭과 意義

탑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아래에서부터 基壇部·塔身部·相輪部로, 이 중 탑 제일 윗 부분을 상륜이라고 한다.

“相輪은 輪相이라고도 하며, 상륜은 圓輪이 높이 솟아 표상이 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輪相이라 말한 것은 僧祇가 이르기를 부처께서 迦葉佛塔을 만들 적에 맨 위에 넓은 盤蓋를 얹고 길게 輪相을 표했다. 經 가운데 많이 相輪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쳐다보기 때문이다.”<sup>5)</sup>

3) 《三國遺事》卷3, 塔像條, 요동성육왕탑.

4) 《行事鈔資持記》下4.

5) 《名義集》7, 寺塔壇幢篇 第59, “率塔婆 …言輪相者 僧祇云 佛造迦葉佛塔上施盤蓋 長表輪相 經中多云輪相 以人仰望而瞻相也…”

위의 기록을 통해 보면 탑파의 부분중에서도 제일 윗 부분에 만들어진 상륜은 결국 가장 우러러 볼 수 있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른 어느 부분보다 더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꾸미고 장엄을 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륜을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그 명칭과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 보고자 한다.

### 1. 露盤

노반은 承露盤이라고도 하며 중국 漢 武帝( BC 141~87)가

“봄에 栢梁臺를 세웠는데 높이가 20장인 銅으로 만든 선인장 모양의 承露를 얹어 이슬을 받아 옥가루를 섞어 마시면 오래 산다.”<sup>6)</sup>

고 하여 장수하기 위해 이슬을 받던 그릇으로 이것은 道敎인 것이 佛敎와 융합되어진 것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甘露, 즉 하늘에서 내리는 단 이슬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성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상륜 맨 아래층에 있는 盤으로 이는 귀한 사람을 모실 때나 혹은 신성한 물건을 다룰 때 높이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경의를 표하는 의미라 하겠으며, 인도 산지탑의 基臺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覆鉢

복발은 인도탑의 탑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구형의 바릿대[鉢]를 얹어 놓은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說이 있으나 요약하면 고대 인도의 둥근 모양의 住居 형태를 死者의 집으로, 하늘 모양을 円形으로 한 宇宙山( Cosonic Mountain )의 상징인 佛敎의 極樂淨土의 起源으로 보고 있다.<sup>7)</sup>

흙을 쌓아 올린 분묘(무덤)형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무덤형태가 바로 복발형으로 되어졌음은 역시 불교의 전래에 따른 탑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 3. 仰花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된 蓮華는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피어 오르는 꽃으로, 이 미 멀리 이집트의 국화로서 사용되어 졌었고, 오늘날 많은 그들의 벽화나 조각에서도 연화의 모습을 남기고 있다.

연화가 위를 향해 있는 것을 仰花라고 하며 상륜에서 이를 표시한 것은 부처·보살이 앉는 蓮

6) 《通鑑》，卷9，世宗孝武皇帝.

《三國志》卷3 魏書，明帝紀注.

7) 杉本卓洲，《インド佛塔の研究》，平樂寺書店，1984，pp.192~219.

華座로 즉 귀한 者(佛)만을 모시는 자리로 표현 되어진 것이며 아울러 항상 깨끗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寶輪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死後 전쟁 중식을 염원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이상적 제왕의 출현 요망에 따른 轉輪聖王 관념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른 설화로서 전륜성왕이 출현할 때에 땅속에서 솟아나는 7가지 보물과 4가지 德을 가지고 출생하는데 수레바퀴 같은 4개의 輪 즉 金·銀·銅·鐵의 4輪 寶를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sup>8)</sup>

전륜성왕은 인도에서 이상의 王으로 모든 곳에, 또 누구에게나 골고루 평등하게 法이 미쳐 통치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레바퀴[輪]가 굴러가듯 한다는 의미로 둥근모양으로 표현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을 장엄한 것을 寶輪이라 하며, 이상적인 전륜성왕을 불교와 연결시켜 法은 佛法(Darma)을 전파(순수)시킬 수 있는 者, 최고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 5. 寶蓋

구슬같은 보석으로 장식된 天蓋를 말하는 것으로 王이나 王子 또는 고귀한 분을 모시거나 행차시에 쓰는 日傘 또는 傘蓋로 햇빛을 가리는 것으로 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sup>9)</sup>

인도 산치(Sanchi)塔 東門 第2橫梁 정면 조각에 出家踰城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sup>10)</sup> 이는 왕자였던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위해 궁성을 빠져 나갈 때의 것으로 말을 탄 왕자에게 산개를 받쳐주고 있다.

산개는 중국에서나 우리나라 기록에서 또는 벽화와 같은 그림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삼국시대 고분벽화인 수산리벽화에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 뒤에 시녀가 曲傘을 받쳐주고 있으며, 기록에 남긴 것으로는 『高麗史』에 王의 대가노부, 중가노부, 소가노부의 행차에 청색, 홍색 일산을 들고가는 사람들의 직책과 숫자, 행렬의 위치가 있다.<sup>11)</sup>

조선시대 일산은 각종 의식을 그린 〈반차도〉〈풍속도〉또 유물이 있어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일산의 모양도 사각형·원형·종형·곡산, 또 한개에서 세개까지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색깔에 있어서도 황제는 황색, 황태자는 붉은색 왕세자는 검은색 그리고 감사나 유수는 임지에 부임할 때 흰 바탕에 푸른색을 둘렀다<sup>12)</sup>는 기록에서 일산의 모양, 숫자, 색이 지위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8) 韓國佛敎大辭典 편찬위원회刊, 《韓國佛敎大辭典》2, 寶蓮閣, 1982, p. 597.

9) 韓國佛敎大辭典 편찬위원회刊, 앞 책, p. 588.

小杉一雄, 《中國佛敎美術史の研究》, 新樹社, 昭和55年, pp. 76~104.

小杉一雄, 《中國美術史》, 南雲堂, 1986. 5. pp. 86~89.

10) 宮治昭, 《イソド美術史》, 吉川弘文館, 昭和56年 10月, p. 50.

11) 《高麗史》여복, 어가행렬.

12) 中央日報社刊, 《韓國의美》 19·21권.

어쨌든 日傘은 적어도 상당한 신분 이상의 사람들만이 사용한 것은 인도나 중국, 우리나라가 다 마찬가지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전륜성왕과 같은 이상적인 王을 표시하는 寶輪 위에는 日傘을 아름답게 장엄하여 놓았음은 당연한 것이다.

## 6. 水煙

보개위에 붙어 있는 장식품을 말하며 불꽃모양을 한 것으로 이는 예로부터 工匠들이 화재를 꺼리는 관습에서 불에 인연이 있는 이름을 피하여 이렇게 말한다<sup>13)</sup>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日人 학자들은 이 설을 따르고 있다.<sup>14)</sup>

그러나 水煙이란 말은 중국文學에서 자주 나오는 말로 그 뜻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풀이하고 있다.<sup>15)</sup>

첫째, 수연이란 물위의 煙霧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물위에 낀 아지랑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둘째, 수연은 연기와 같은 의미로 되어 있다. 이는 첫번째 뜻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연기와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중국문학에서 등장되고 있는 水煙의 뜻은 불보다는 물과 관련되고 있는 편이 훨씬 많다.

불을 피하기 위한 뜻으로 본다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나무로 건축된 木塔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굳이 불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塔 자체가 무덤의 의미가 있고 더구나 相輪은 轉輪聖王과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 한 오히려 불에 타는 위험성을 꺼린 것보다는 영광스러운 빛, 마치 佛像에서 光背와 같이 두루 광명을 비치는 의미로 해석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木塔이 아닌 石塔·磚塔·金銅塔과 같은 재료에서는 오히려 물과 관련지어 봄이 그 다음에 엮어진 龍車와 같이 연결시킬 때 더 가깝게 된다.

## 7. 龍車

龍이란 天龍八部衆의 하나로 佛法을 수호하고 바람·구름·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神通력을 가지고 있으며, 용은 곧 君(王)으로 표현 되어지고 있다.<sup>16)</sup> 天子의 御車를 龍駕 또는 龍車<sup>17)</sup>라고 하며 이것은 王의 자리를 표현하는 최고의 자리임을 뜻한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최고의 자리인 동시에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神通력을 가진 위대한 힘을 나

13) 諸橋徹次, 《大漢和辭典》卷6, 大修館書店, 昭和35年, pp. 855.

14) 石田武作, 《塔婆》雄山閣出版社, 1984, p. 18~29.

小杉一雄, 《日本の文様》社會思想社, 昭和44年 6月, p. 111.

夢殿編纂所刊, 《塔婆の研究》昭和18年, p. 182.

15) 諸橋徹次, 앞 책, p. 855.

16) 中國文化研究所刊, 《中文大辭典》第38冊, 中華民國56年, p. 633.

17) 中國文化研究所刊, 앞 책, 第38冊 p. 643

타내고 있고 용은 물과 관계된 것으로 水煙이 물과 연관지어 지는 것이 오히려 용차를 설명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본다.

## 8. 寶珠

보주는 상륜부 중에서 제일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은 如意珠 또는 摩尼珠라고 하며,<sup>18)</sup> 《無量壽經》에는 “如意珠는 最勝者이다. 고로 王이라 일컫는다”라고 했는데,<sup>19)</sup> 이는 용입에 물린 둥근 모양의 구슬 형태로 표현되어 지고 있는데 龍이 여의주를 물면 만사형통하여 득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상륜부의 명칭과 관련된 의미를 다시 종합해 보면, 높고 깨끗한 자리(露盤·覆鉢·仰花)에 앉은 轉輪聖王(寶輪), 그 위에 日傘(寶蓋)이 받쳐져 있어 고귀함을 강조하고 다시 그 위에는 龍(龍車)이 물에서 솟아 오를 때 물안개가 피어 오르고(水煙) 용은 如意珠(寶珠)를 얻음으로써 만사형통할 수 있는 힘, 즉 《大智度論》에 寶珠는 능히 404의 병을 없앨 수 있다고 하였듯이,<sup>20)</sup> 이것은 전륜성왕의 위대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 IV. 相輪部 樣式의 變遷

불교가 전래된 초기인 4C 경의 한국탑과 상륜부 형식이나 재료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 이후 만들어진 탑으로 黃龍寺9층木塔 상륜에 관한 기록으로서 『三國遺事』에는 “鐵盤 이상의 높이가 42척, 그 이하는 183척이다”<sup>21)</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목탑의 상륜 재료가 鐵이었다는 것과 상륜부가 전체 탑의 약  $\frac{1}{4}$ 에 해당하는 높이였다는 것만을 알 수 있다. 황룡사9층목탑과 같은 계통으로 보는 경주南山塔谷의 2기의 마애탑인 9층탑(圖 3-1)과 7층탑<sup>22)</sup>의 상륜을 보면, 露盤에서 寶珠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정연히 놓여져 있으며 9층탑에서는 9개의 寶輪을, 7층탑에서는 7개의 寶輪이 있다. 따라서 황룡사9층목탑의 상륜도 이들 탑과 같았을 것으로 보고 9개의 보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신라시기로 栢栗寺 石柱浮彫塔의 相輪部에서도 남산탑곡마애탑과 같은 형태로 보이고 있다.

다음은 삼국의 탑과 상륜부로서 고구려탑은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평양 청암리사지를 8각목탑의 자리로 본다면 역시 경주남산탑곡마애탑과 유사했으리라고 본다.

백제는 여러기의 현존탑을 가지고 있으나 불행히도 상륜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書紀』에 백제의 露盤博士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고, 백제 아버지가 황룡사9층목탑을, 아사달이 석가탑을 만들었다는 『三國遺事』 기록을 미루어 볼 때 백제탑과 상륜부도 신라와 크게 차이를 가지

18) 韓國佛敎大辭典편찬위원회刊, 앞 책, p. 637.

19) 《無量壽經》, “...其寶柔軟 從如意珠王生...”

20) 《大智度論》卷第59, “...寶珠能除四百四病...”






21) 《三國遺事》卷3, 塔像條.




22) 黃壽永·金吉雄, 《慶州南山塔谷의 四方佛巖》, 特別展圖錄4, 通度寺聖寶博物館, 1990, p. 61. 황수영선생께서는 이들 탑을 7C로 추정.

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백제의 현존하는 가장 오랜 탑으로 보는 미륵사지탑 주변에서 寶輪과편, 풍탁<sup>23)</sup> 등이 발굴된 것으로도 짐작된다.







세 나라중 신라가 가장 많은 탑 상륜부를 남기고 있는데 8C의 석가탑과 같이 신라가 발전되어지면서 탑과 자체가 新羅典型을 만들어 냈고 그에 따라 상륜의 형태도 정형을 이루었다고 보아진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實相寺 동·서삼층석탑으로 이중 東塔은 용차의 일부분이 약간 파손된 것과 西塔의 수연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완전한 상태이다(圖 5).

이후 9C에 와서는 정치적 변화 불교적인 변화로 상륜의 부분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고려에 와서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13C 이후 몽고침입을 받은 후에는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형태 즉 라마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관한 것을 하나 하나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반에서는 방형이 일반적이나 불국사다보탑에서는 8각형의 노반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도 대부분의 노반은 방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라시대 노반형태는 ①  ②  ③  ④  ⑤  와 같은 형태로 나누어 지는데 이중 ③의 형태가 가장 많고 ④의 2중노반은 중원탑평리 7층탑만 이런 형태이다. 단지 고려시대 탑파인 이북의 영명사 8각석탑의 노반은 불국사와 같이 ⑤의 8각형을 이루고 있다.

복발은 반구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라시대의 일반형이나 이 복발의 형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은 ①  와 같이 아무 문양이 없는 것, ②  와 같이 횡선이 두줄 또는 세줄 그여진 것, ③  와 같이 횡선 가운데 꽃모양을 하고 있는 것 등으로 나누어 지고 있는데, ①에 해당하는 복발은 송림사5층전탑(圖 6-1·2·3·4), 화엄사4사자탑, 실상사백장암탑(圖 7) 등을 들 수 있고, ②에 해당하는 것은 고선사지3층탑, 불국사3층석탑, 다보탑, 그리고 ③에 해당하는 것은 실상사3층탑(圖 5), 봉암사3층탑(圖 8), 보림사남북3층석탑(圖 9), 중원탑평리7층탑, 부석사3층탑, 단속사지3층탑, 단양향산리3층탑등 대체적으로 횡대와 화형(꽃모양)이 새겨진 것이 제일 많다.

그러나 이러한 횡대와 연관되는 것은 인도의 산치탑의 복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돌간간의 변형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며, 화형은 문(Torana)의 변형인 것으로 보여진다.

양화는 산치탑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평두가 우리나라에서는 양화로 되어진 것으로 본다. 대신 우리나라 탑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도 평두와 같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日人학자는 한국탑 상륜에서도 平頭가 있는 것으로 쓰고 있다.<sup>24)</sup> 양화의 형태는 방형의 모양에 얹혀진 꽃잎과 원형·팔각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  ②  ③  ④  ⑤  ⑥  등이다. 이중 ③에 해당하는 것은 송림사5층전탑이 대표적이고, 그밖에 봉암사3층탑, 실상사동·서3층탑, 단속사지3층탑, 불국사3층탑등이고, ④에 해당하는 것은 연꽃잎이 8엽인 것은 ③과 같으나 단지 밑에 놓여진 것이 ③은 방형인데 비해 ④는 8각을 이루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보탑을 유일한 예로 들 수 있다. ⑥과 같은 이중의 연꽃을 가진 것은 아랫 것이 4엽 윗단이 8엽으로

23) 文化財管理局, 《미륵사지석탑발굴보고서》, 미간행.

24) 大西修也, 앞 책, pp. 7~8.

중원 탐평리7층탑을 들 수 있다.

보륜은 ① ○ 의 보륜이 일반적이고 이것은 사실상 인도에서 탑이 시작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인도의 전륜성왕을 가장 위대한 王으로

“자기 마차(馬車)의 바퀴를 어느 곳이나 굴리는 - 즉 가장 기본적인 규범인 5계를 펴기 위해- 지배자, 세계의 제왕을 뜻한다.

전륜성왕은 바로 달마( Dharma )이며 전륜왕이 정해준 기본원칙이란 5계(戒)이다.

전륜성왕(轉輪聖王)과 불타(佛陀)는 결국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sup>25)</sup>

라고 함으로써 수레바퀴 모양의 둥근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아울러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원형의 형태였으며, 중국에서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古代인들이 원형을 天으로 생각했으며 곧 이것은 王을 나타내는 형태로서 가장 위대한 이상적인 전륜성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모양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원형의 보륜은 ② ㉞ ③ ㉟ 와 같이 원형이면서도 변형된 모습으로 수레바퀴모양같이 투각되거나 꽃잎모양과 같이 변형되기로 하며 ①의 형태에서도 문양을 시문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①의 형태로는 실상사 동·서3층석탑(圖 5), 보림사남·북3층석탑(圖 9), 그리고 ①의 형태로 재료는 돌이나 꽃문양을 철로 만들어 붙인 것이 고려때 월정사8각9층탑(圖 11), ②의 형태는 송림사5층전탑(圖 6-1), 범주사팔상전, ③의 형태는 정암사수마녀탑이 있다. 그러나 불국사 다보탑은 3개의 보륜중에서 아래에 놓여진 두개는 원형이나 위에 놓여진 한개는 팔각형으로 같은 탑안에 놓여진 보륜의 모양이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보륜의 숫자는 원칙적으로 전륜성왕이 태어날 때 땅속에서 4개의 輪이 솟아났다고 하는 설화가 있는데 그 네개의 輪은 금·은·동·철이라고 한다. 때문에 보륜의 숫자는 원칙적으로 네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으나 이러한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지고 있다.

신라가 3국통일을 전후해서 통일에 대한 정치적 욕구와 이를 결속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불교가 결합되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전륜성왕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서 범흥왕~진덕여왕은 王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지었으며, 진흥왕은 “사미”라고 하고 말년에는 “법운”이라고 스스로 일컬었으며, 그 아들들의 이름도 “金輪”, “舍輪”, “鐵輪”, “銅輪”등 전륜성왕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진평왕은 자신이 王即佛 사상을 구현하여 이름을 “백정”, “정반”, 왕비를 “마야부인”, 형제들을 “백반”, “고반”등 석가왕실을 재현하고 있으며, 선덕여왕은 “덕만”, 진덕여왕은 “승만”과 같이 인도 여승이름에 “만”을 붙이는 것을 그대로 따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만들어진 신라석탑 상륜부에 나타난 보륜의 수는 역시 전륜성왕 의식이 강했던

25) 《Sanskrit-English Dictionary》, op. cit., p. 381.

관계로 4개의 輪을 나타내고 있다. 4륜을 가지고 있는 탑으로서는 실상사동·서3층탑(圖 5)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보림사북탑(圖 9)은 5륜이나 남탑은 3륜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3륜으로서는 표충사3층석탑에서 3륜이 중첩되고 있으며, 북쪽의 것으로 금강산 정양사의 3층석탑, 백장암3층석탑, 송림사5층전탑이 있고, 5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암사수마녀탑, 봉암사3층탑(圖 8), 범주사팔상전 등이 있으며, 9륜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주남산탑곡의 2기의 탑 중 하나는 9륜, 다른 하나는 7륜이고, 고려때 것으로 월정사 8각9층석탑(圖 11)이 있다.

그러면 3륜, 4륜, 5륜, 9륜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숫자는 단순히 제작자의 임의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고대인들의 “수” 관념과 연결되어 저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3륜의 3은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三은 고어로 “미리”(miri)로 물(水)의 변음으로 보며 三은 川과 같이 통하고 있고 미리는 용(龍)으로도 표현된다<sup>26)</sup>고 한 것과 5는 土·母(모태·주체), 無, 中, 王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9는 “모든 것의 끝”, “모든 것의 총만”으로 우리말의 “그만”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九萬”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며, 九는 신출귀몰(神出鬼沒)이라는 말로 신비한 위력을 나타내는 수로 보고 있다.<sup>27)</sup>

전륜성왕이라는 王의 개념으로 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3(용=왕), 4(금은철동륜의 설화), 5(王), 9(신출귀몰의 위력)등의 몇가지 숫자는 결국 王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륜의 숫자가 3, 5, 9등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개는 王내지 귀한 분에게 했

보개는 王 내지 귀한 분에게 햇빛을 가리기 위해 씌워주는 양산으로서 그 형태는 대부분이 8각형이나, 고려 때 강능 正東津 5층석탑은 6각형이며, 귀꽃이 조각되어 지고 있다. 水煙은 신라시대에는 석제로 만들어 지고 거기에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데, 일본 학자들이 불꽃문양으로 보고 단순히 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하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고려시대로 넘어 오면서는 석탑이라 하더라도 수연에서는 청동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경우가 월정사8각9층탑(圖 11)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수연이 다른 부분에 비해 유난히 크고 둥근 꽃모양의 형태와 같은 것도 있다(圖 15).

그밖에 청도매전동출토 塼(圖 10)과 같은 것에도 탑 상륜부를 알 수 있으며, 고려때 《法華經》에 寶塔圖로서 第4, 6, 7의 〈見返經〉<sup>28)</sup>에 나타난 것도 신라탑 상륜과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골호 또는 사리용기에서와, 통도사보탑, 그외 동국대 경주분교 박물관소장 상륜부재, 춘궁리3층 석탑 수연, 석굴암의 보탑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수연은 석제에서 철제로 바뀌고 있으며 문양을 돌에 새겼던 것에서 투각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용차는 원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역시 최고의 하늘(天=王)을 표현하는 형태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것도 신라시대를 지나 고려로 넘어오면서 초기의 월정사8각9층탑을 제외하고는 그이의 탑에서는 생략되거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보주는 용차와 같은 구슬모양의 원형으로 여의주를 표현한 것이라 보겠는데, 이것 역시 고려에

26) 朴容淑, 《韓國古代美術史研究》, 1981, 一志社, p. 30.

27) 朴容淑, 앞 책, pp. 33~34, p. 40.

28) 金銀字書 法華經 寶塔圖는 현재 日本 教王護國寺에 소장되어 있음.

와서는 정암사 수마뇌탑, 경천사지10층탑<sup>29)</sup>과 같이 전혀 다른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신라시대에는 상륜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다가 9 C 신라 말기에 오면서 보림사남북3층석탑에서 두탑의 보륜의 수를 달리 표현하고 보개 수연 용차 보주등이 생략되어지면서 10 C 고려에 와서는 다양하게 부분마다 변화를 가져 오고 13 C 몽고 침입이후에는 라마적인 색채가 강하게 표현되면서 공주마곡사5층탑, 금산사5층탑, 조선시대에는 낙산사 7층탑(圖 12)과 같이 탑신을 그대로 두고 상륜에서만 라마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그밖에 密敎的인 성격이 탑 상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경주남산탑곡마애탑 2기, 월정사8각9층탑, 마곡사5층탑, 수종사탑, 정암사수마뇌탑과 같이 풍탁을 달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고려때 와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금동탑의 상륜으로 양화가 4엽으로 다른 것보다 크고 외엽된 것(圖 14), 보주만이 유난히 길고 다른 부분은 신라의 전형적 상륜과 같은 형태의 탑으로 동국대 박물관 소장(圖 13·15·16), 출토지 미상의 상륜부만 남아 있는 청동 상륜으로 7~8cm정도 크기의 동대박물관 소장(圖 17·18) 등의 것은 유난히 윗부분이 칼자루모양과 같이 길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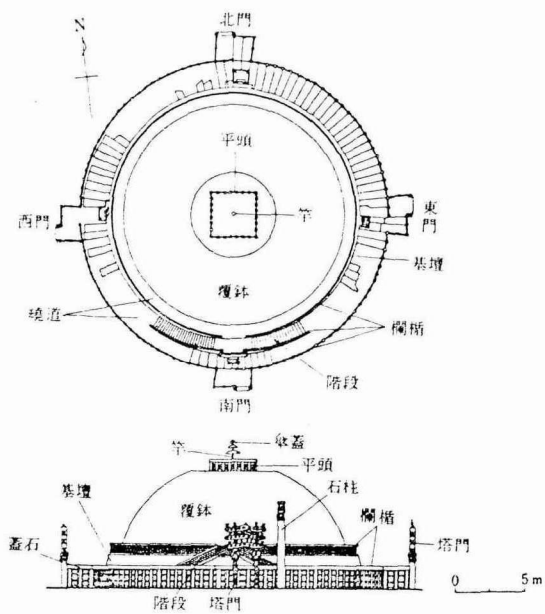
## V. 맺는말

이상적인 전륜성왕의 자리는 높은 단을 만들고 그 단은 다시 아름답고 깨끗한 연화로서 장식된 자리에 앉게 되고, 전륜성왕의 표현은 둥근 원으로 3, 4, 5, 9의 숫자로 나타내어 지고 있으며 이들은 4개가 원칙의 것이나 동양적인 고대인들의 수의 개념으로서는 3, 5, 9로 각각 최고의 힘 또는 최고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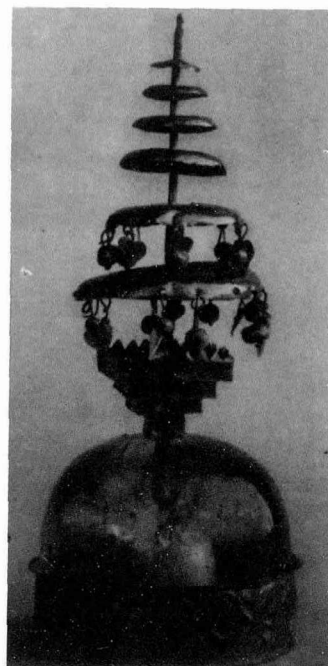
그 머리위에는 햇빛을 가리는 산개인 보개로서 장식하고 있으며, 다시 그 위에는 용이 물에서 솟을 때 일어나는 물안개로 볼 수 있는 수연을, 다시 그 위에는 위대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용이 여의주를 갖임으로써 조화가 이루어 진다. 이들의 모양은 둘 다 똑같은 구슬모양의 원형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용(=天=王)을 하나는 여의주를 나타낸 것이다. 즉 만사형통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탑과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상륜은 고귀하고 우러러 바라 볼 수 있는 존재자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표현이 가장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역시 불국토(佛國土)를 건설하려고 했던 신라인들의 의식이 강했던 통일 전·후를 통해서이며 그 이후 신라말기부터 부분적 변화를 나타내다가 드디어 고려로 넘어오면서 불교사상의 다양화, 국제관계 변화 등으로 상륜의 표현은 신라와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신라 탑과의 상륜을 대체적으로 정형적(실상사동·서3층탑, 봉암사3층탑등)으로 본다면 고려시대는 다양화의 시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9) 이 탑은 元의 기술자가 우리 고려에 와서 직접 만든 탑으로 라마교적인 탑인데 학자들간에는 10층탑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탑의 층수를 홀수(양의수)로 만들어 졌던 사실로 미루어 불대 11층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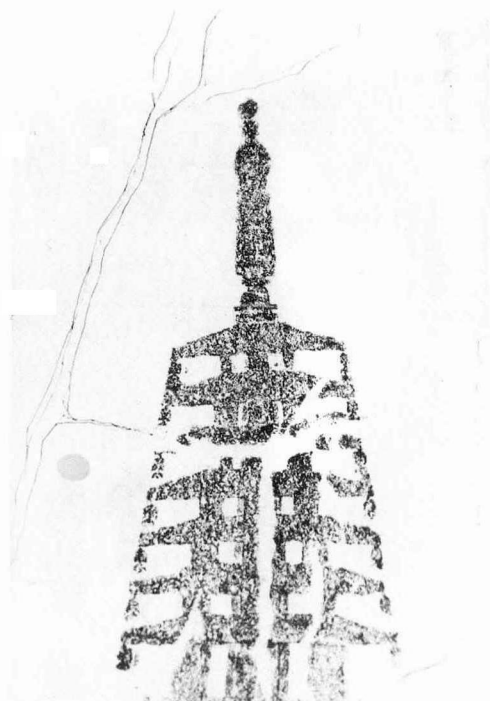
〈圖 1〉 산치 제1탑의 평면·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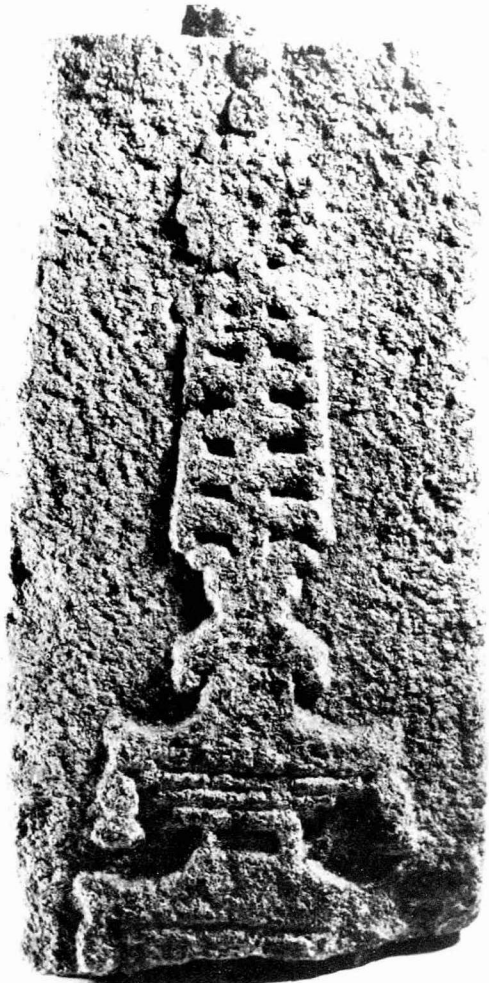
〈圖 2〉 산치탑 사리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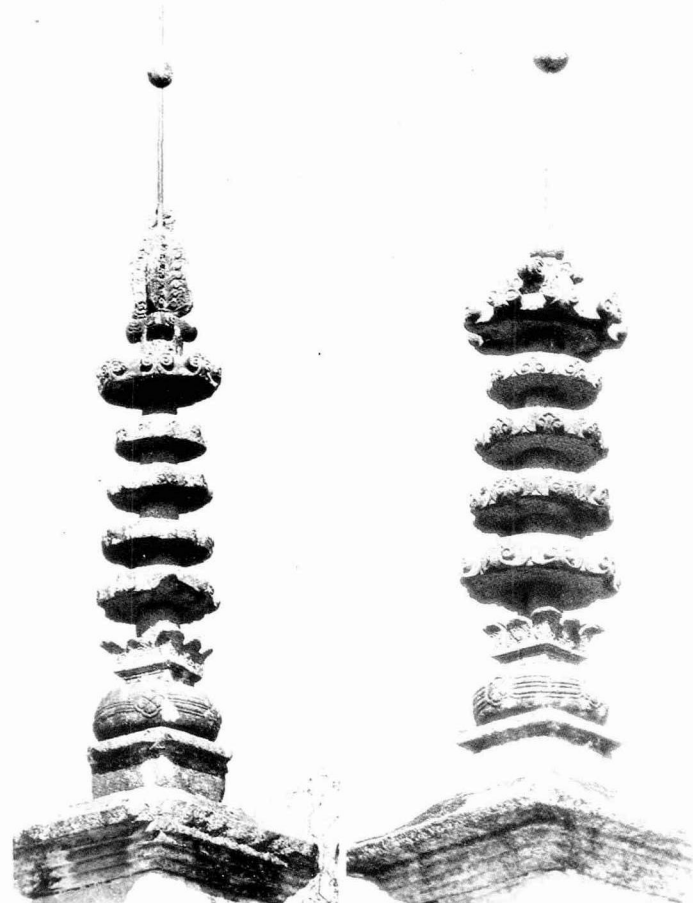
〈圖 3-1〉 慶州 南山塔谷磨崖9층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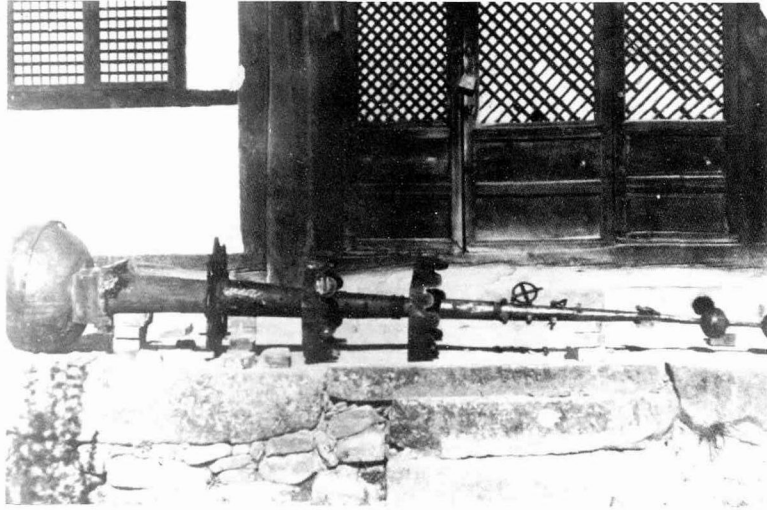
〈圖 3-2〉 慶州 南山塔谷磨崖9층탑 相輪部 탁본



〈圖 4〉慶州 栢栗寺 石柱浮彫塔 相輪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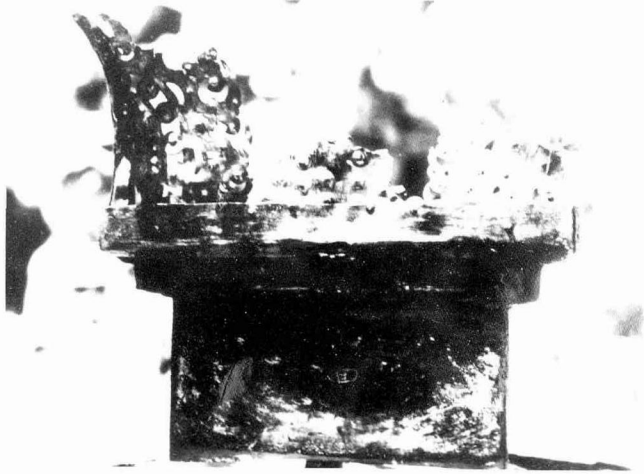
〈圖 5〉南原 實相寺 東·西3층석탑 相輪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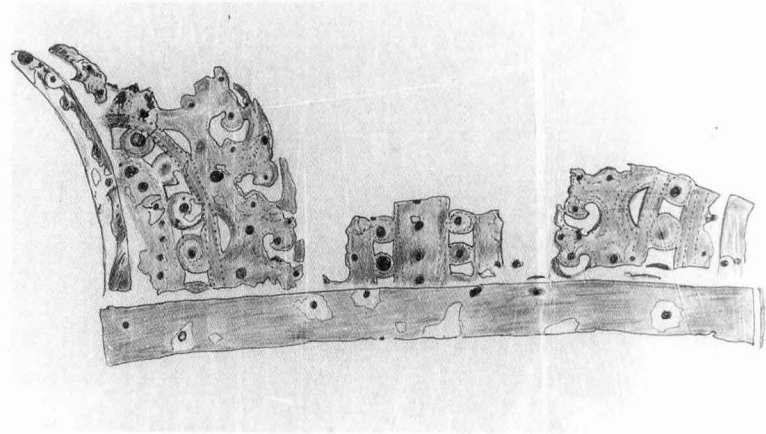
〈圖 6-1〉 松林寺 5층 磚塔—1959년 해체당시 金銅相輪部



〈圖 6-2〉 松林寺 5층 磚塔—해체당시 覆鉢



〈圖 6-3〉 松林寺 5층 磚塔—해체당시 仰花



〈圖 6-4〉 松林寺 5층 磚塔—해체당시 仰花圖面



〈圖 7〉 實相寺 百丈庵3층석탑 相輪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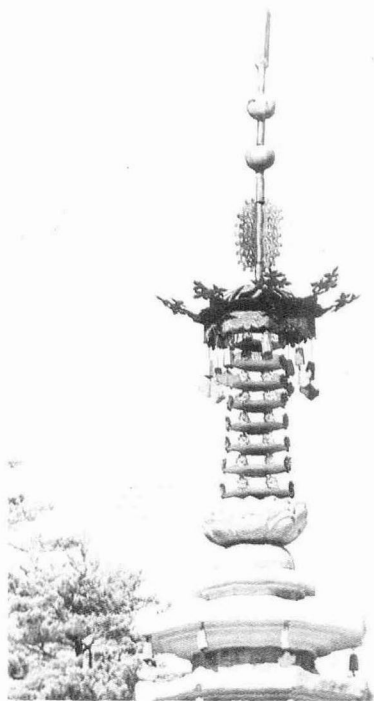
〈圖 8〉 鳳巖寺3층석탑 相輪部



〈圖 9〉 寶林寺 北3층석탑 相輪部



〈圖 10〉 梅田洞塔像埴



〈圖 11〉 月精寺8각9층석탑 相輪部



〈圖 12〉 洛山寺7층석탑 相輪部(라마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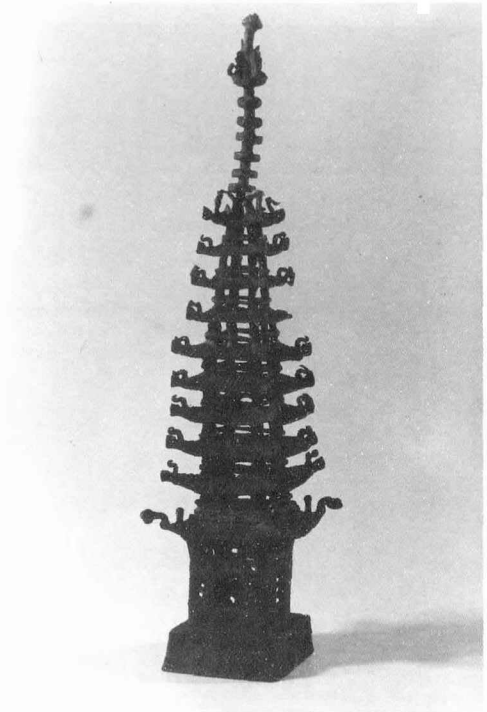
〈圖 13〉 東國大學校博物館소장—고려시대 靑銅塔



〈圖 14〉 東國大學校博物館소장—고려시대 靑銅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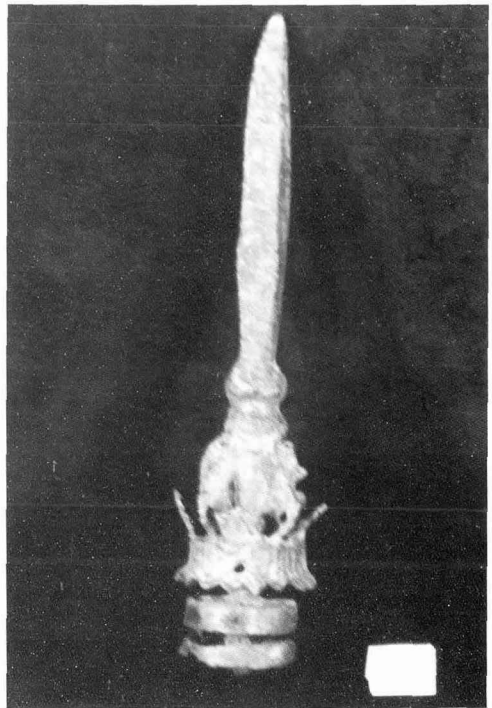
〈圖 15〉東國大學校博物館 소장—고려시대 靑銅塔



〈圖 16〉東國大學校博物館 소장—고려시대 靑銅塔



〈圖 17〉東國大學校博物館 소장—고려시대 靑銅塔 相輪部



〈圖 18〉東國大學校博物館 소장—고려시대 靑銅塔 相輪部